

디자인 미학 (Theories of Modern Art and Its Influence on Design)

읽기 요령  
-일단 모르는 단어를 찾고 해석하기 전에 글의 전개상 서론, 본론, 결론을 살핀 후에 자세히 읽기 시작한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쳐 있다. 그 부분의 핵심단어나 문장을 찾아라.  
-각주 읽기와 연관된 쟁점에 맞추어 스스로 답을 구하는 식으로 읽어보자.

1-3주 현대미술비평의 정의와 역할

1주 INTRODUCTION (강의 소개 및 현대미술비평사에 등장하는 쟁점의 변화)

Q: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주요 비평적 쟁점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 4-6주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 (아방가르드 취향의 탄생)
- 7-10주 예술의 정의, 아방가르드의 취향을 뒤집다. (분류로서의 예술)
- 10-13주 주도적인 시점을 논하다. (정체성과 스타일의 혼돈)

2주 WHY MODERN ART AND ARTISTIC CRITERIA? (왜 현대 미술인가?):

Q: 왜 현대미술인가의 질문에 보다 깊게 답하기 위하여 현대미술의 주요한 비평적 쟁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즉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에서 과연 이것이 예술인가로 그 정의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전환기는 결국 예술과 디자인에서 아방가르드의 역할이 변화되는 시점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 두 개의 아방가르드
- 현대미술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예술적 정의 (Honorific to Classificatory Definitions of Art)

아방가르드의 정의 (한글)

T. Barrett, "Honorific vs. Classificatory Definition of Art," and more pp. 1-4  
형식주의 소개

3주 WHAT ART AND DESIGN? (20-21세기 현대미술과 디자인이 왜 만나야 하는가? 혹은 만날 수 없는가):

Q: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디자인과 만나는 순간들이 생긴다. 한편으로 그 만남은 가능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서로 만날 수 없는 분야들이 만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현대미술의 주요 개념인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 관점에서 살펴해보도록 하자.

- 아방가르드에서 말하는 사회 참여란 무엇인가?
- 디자인에서 말하는 사회참여란 무엇인가? 서로 어떻게 다르고 서로 어떻게 유사한가?

Theory of Avant-Garde

Art and Design: What's the Big Difference - Michael Brady, Critique Magazine  
"Complementary of Art and Design"

46주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 아방가르드 취향의 탄생

4주 ARTISTS AS ART CRITICS 2: Kandinsky during the Inter-war period (예술가의 이론서와 디자인교육의 시작- 내적 필연성, 즉 주관성/객관성이 조화를 이룬 미술

Q: 칸딘스키는 2차 세계대전 직전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1915)를 시작으로 <점선면>(1926)에 이르기까지 추상에 관한 각종 이론을 정립한 중요한 미술이론가이다. 또한 그는 독일 바우하우스에서 1920-30년대를 통하여 기초 과목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 칸딘스키가 주장하는 예술가의 역할, 특히 추상의 역할은 무엇인가?
- 그렇다면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이나 내적 필연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칸딘스키의 미술비평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중에서 (한글)

5주 RUSSIAN CONSTRUCTIVISM: Against Bourgeois Taste (부르조아의 취향에 반하다?)

Q: 러시아 구축주의는 여러모로 매우 흥미로운 총체예술적인 운동이다. 당시 데스틸(네델란드)이나 바우하우스(독일)에 비해서도 훨씬 다매체적이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구축주의가 주장하는 구축과 구성의 차이, 1920년대 공산주의 진영에서 자본주의적인 소비상품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되는 각종 흥미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공부해도록 한다.

- 구성과 구축의 차이는 무엇인가?
- 구축이 만약 실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이론적 근거였다면 러시아 구축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매체들로는 무엇이 있는가요?
-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취향과 당시 대중소비문화에서의 취향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였었나요?

6주 ART CRITICS AS THE DEFENDER OF "TASTE" : Greenberg's Formalist Criticism (취향을 옹호하는 전문미술비평 - 아방가르드와 키치)

전후의 영미권뿐 아니라 유럽을 통틀어서도 매우 영향력 있는 비평가였던 그린버그의 대표적인 비평문중의 하나인 아방가르드와 키치는 그가 아직 미술비평가로 활동하기 전인 1939년에 쓰인 글이다. 저자는 이 글에서 틀에 박히고 반복적이며 상업적인 저급 문화(소위 키치에 해당하는)가 유럽의 전체주의 치하와 미국의 저급문화 지평에서 도시 노동자들로 하여금 문화를 통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일찍이 1930년대 후반에 쓰인 이 글은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의 관계뿐 아니라 대중문화의 특성, 부정적인 대중문화와 긍정적인 전통 토착 문화(Folk Culture)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고전에 해당한다..

Q: 아방가르드의 주요한 특성과 키치의 주요한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 각각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그렇다면 고급예술과 순수예술의 차이가 명확히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린버그가 고급/순수예술을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만약 순수예술과 키치의 구분이 없다면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C. Greenberg, "Avant-Garde and Kisch," (1939) (영문-강의자 주)

\*그린버그에 대한 한글 보충설명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 과제: 이제까지 다룬 비평문중 택일해서 요약본 제출

**7-10주: 예술의 정의, 아방가르드의 취향을 뒤집어보다: 아방가르드의 이단아와 1960년대 중반 이후의 미술**

7주: AVANT-GARDE THAT DEFYIES THE TASTE OF AVANT-GARDE

모더니즘 위주의 역사에서 초현실주의는 빗겨간 역사이다. 취향의 면에서 그린버그의 정의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다. 하지만 디자인 역사와 연관된다고 보다는 많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디자인, 특히 패션디자인의 분야와 깊이 연관되기도 하였다.

-초현실주의자들과 취향의 문제, 과연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하는 무엇이었는가?  
 -공교롭게도 초현실주의의 수장인 브레통은 공산주의를 옹호하였다. 하지만 간간히 비춰지는 초현실주의 관련 작가들이나 작업들은 상업화에 기여한 인상을 주게 된다. 어찌된 일인가?

Elsa Schiaparelli: The Surreal Life  
 Man Ray on Photography

8주 ART CRITICISM AND MAGAZINE: "Artforum" and "October" in the 60's and 70s (1960년대 저항적인 미술의 등장)

Q: 1960년대 말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각종 인권운동과 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관심을 미술계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1910-20년대와 같이 작가들의 선언이나 공동체적인 행동(테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여성운동이나 타자의 예술에 대한 담론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아트 포럼>이라는 잡지와 이외에 1972년 미국에서 결성된 작가 노동자의 연합(AWC)과 1979년 현실과 발전전을 계기로 발표된 선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린버그가 주장하는 순수예술이 부르주아적 사회로부터 거리를 둔 것이었다면 1960년대 미술비평에서는 예술과 삶(real, life)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가능한 부분과 가능치 못한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제 예술계의 변화는 어떠하였는가?

-예술가 노동자들의 연합(AWC) 선언문 (영문 1페이지)  
 --Kaprow, Frieze article

9주 ART CRITICISM AND PHILOSOPHY : Danto's "End of Art" after Pop Art (미술비평과 미학--팝아트 이후 미술의 종말)

Q: 아터 단토는 뉴욕의 콜롬비아 철학과 교수로서 <예술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재직할 콜롬비아는 원래 분석철학, 혹은 언어철학으로 유명한 곳이다. 따라서 단토의 미학은 결국 무엇이 미술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비평적 태도는 앞에서 말한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에서 "이것도 예술인가"라는 비평적 질문이 옮겨가게 되는 경로를 보여준다. <예술의 종말>은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비평적 기준(좋은 예술, 나쁜 예술)이 붕괴되고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실제적인 미술사, 그리고 미술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피고 있다.

-단토가 설명하는 서구 미술사의 발전단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단계들 중에서 1970년대 이후, 즉 예술의 종말 이후 작업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가?  
 -과연 현대미술에서 좋은 미술, 나쁜 미술의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또한 단토가 주장하기를 절대적인 기준이 더 이상 존재하는 현 상황을 본인들은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A. Danto, After the End of Art (1995)의 서문(영문-강의자 주)  
 단토에 대한 요약 설명(한글)

**10-13주 주도적인 시점을 논하다: 정체성의 문제와 스타일의 혼돈**

10주 FEMINIST MOVEMENT: Feminist sensibility? or Ornament. (여성미술의 등장, 그리고 공예와 미술의 만남)

Q: 8-9주에 다룬 단토가 주로 작업의 스타일에 의거하여 절대적인 비평적 기준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면 1960년대 말부터 등장하게 되는 타자(여자, 비서구권 문화, 인종적인 타자, 성적 소수자)과 연관된 담론들은 기존의 비평이 기득권의 시점에서 쓰인 한계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절대적인 비평적 기준이 붕괴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예술의 정의가 모호해져서 아니라 비평이 보편적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 계층만의 목소리와 기준만을 반영하여 왔기 때문이다.

- 오랫동안 여성들이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왔으나 왜 새삼스럽게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여성미술에 대한 담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 부르드의 글에서 기존의 미술비평은 공예와 남성, 여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피로의 예가 왜 긍정적인 여성 미술의 예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 과연 여성미술이 가능한가? 필요한가? 나아가서 여성미술이 여성작가들에게 득이 되는가?

여성미술 담론에 대한 요약(한글)  
 노마 부르드(Norma Bourke), "미리엄 사피로와 페마주," 번역(한글)  
 Loos, Ornament is Crime

\* 과제: 이제까지 다룬 비평문중 택일해서 요약본 제출

## 11주 FIELD TRIP: 전시장 방문

### 12주 PRIMITIVISM AND LOCAL TASTE OF KOREA (서구중심적인 담론과 로컬 취향)

Q: 여성미술과 함께 비서구권이 부당하게 서구 사회의 시선에 의하여 재현되어온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후기 식민주의, 원시주의에서 규정하는바 서구인들의 눈에 비서구권은 서구인들에 비하여 낙후되고 동물적이며 미개한 이미지로 재현되어져 왔고 이러한 성향을 1920년대 한국미술에서 '한국적인 슬픔'을 규정한 일본 미술사가 야나기의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 서구인들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예술을 타자화하는 과정(Orientalism)이 일본인들이 조선의 예술을 타자화하는 과정과 어떻게 유사한가?
- 양가적인 감정과 유형화의 측면에서 이 두 과정이 어떻게 유사한가요? 아직도 야나기의 유형화가 우리의 미술비평에 남아 있는가?

L. Diepeveen eds. "Western Art and Other Cultures," in *Art with a Difference*. pp. 41-46, 55-56.

Yuko Kikuchi, "Oriental Orientalism" in *Japanese Modernization and Mingei Theory*, pp. 123-131.

\* 과제: 11주 전시비평(2페이지)

### 13주 BEYOND THE DISCOURSES OF OTHERS (타자에 대한 담론을 넘어서 문화적 정체성의 혼돈으로)

Q: 영국의 문화비평가이자 중미 출신의 혼혈인 스투어트 홀의 문화적 혼용성에 관한 글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적 혼용성에 관한 이론을 살핀다.

- 홀에 따르면 서로 다른 문화들의 만남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뿐만 아니라 홀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홀의 개인적인 인터뷰에서 자신이 고향인 중미를 떠나서 영국에서 겪게 되는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예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백남준, 이우환, 박이소를 잇는 한국의 망명작가들의 경우에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Stuart Hall, "Cultural Hybridity," and "Interview," *Guardian*, 2010

박이소 인터뷰 (보충)

### 14주 CULTURAL HYBRIDITY AND THE VERNACULAR (전지구화 시대에 버나큐러 팝아트) 부분 강의

Q: 실제로 일본, 중국, 인도, 한국의 팝아트들은 공동체적으로 근대사회의 변화상을 일종의 국제적인 시각언어로 풀어낸 경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은 서구의 팝아트의 영향을 받은 비서구권 예술을 버나큐러 예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버나큐러는 전통적인 문화도, 그러나 전적으로 서구의 대중소비문화와도 다른 중간자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버나큐러 문화는 주로 하위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에 해당한다.

- 하위문화와 순수예술이 만나게 되는 주요한 예로서 일본의 팝아트, 오타쿠 등을

들 수 있다.

- 나아가서 아시아의 팝아트들(일본, 중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가 서구의 팝아트와는 다른 특정한 지역적인 연대성을 지닌다고 생각하는가?
- 물론 과연 이러한 문화적 혼용성이 긍정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Superflat Aesthetic (Otaku Culture)*

*Chinese Pop*

최정화, "노스텔지어" (보충)

### 14주-15주: ART AND DESIGN PRODUCTIVE MEETING POINT(발제)

"Writing art criticism" and individual presentations

쓰기에 대한 강의 및 학생들 발제

\* 기말과제 제출